

* 팀NO : 2019- 37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우크라이나 (1 팀)

공항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우크라이나

3. 사역기간 : 2019년 10월 2일(수) ~ 10월 11일(목) 1(1)박(10)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LAH



이성영 6/16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안집	이 승득	LEE Seungdeuk	15	우	81-85				
2	총무	최환숙	CHOI Chun Sook	15		88-51					
3	서기	강인자	KANG Im Ja	15		84-24					
4	회계	이영순	LEE Young Sook	15		88-23					
5	의료	박재경	PARK Jea Kyung	15		87-60					
6	서기	김수이	KIM Soom Lee	15		88-38					
7	11	박순복	PARK Soom bok	15	우	81-84					
8	11	손기영	SON Si Young	7	우	80-81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6/16

황수연

6/16

정재명

우크라이나 선교를 다녀와서

15교구 박수복 목사

선교를 준비하면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구역 양노원구역 노방^{전도}구역 어린이구역 . 목고노인 심방 구역.

현지 교회에서의 예배와 찬양 마지막 다른곳의 어린이 구역까지

연청산 자리를 오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전했다

팀원 각각의 개성에 따라 필요를 채우셨고

특별히 고려인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셔서

현지인들 동역을 통해 ^{현지인으로 말하} 들으며 전하게 하셔서 더욱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

현지교회에서는 지난 팀원 사역 때 아들 때문에 교회에 오셨던

어머님께이 시련을 받고 남편까지 잃는 큰 가족이 예배에 나오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

학교 구역에서는 세명의 어린이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양노원에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병들고 자처 있던 영혼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생명의 소생함을 그분들의 얼굴을 통해 보게

하셨다. 독고노인들의 심방과 어린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예배 ~~드려~~와

찬양을 올려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함께 화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다녀와서

이번 우크라이나 선교는 매우 ^{15교구 1팀} 풍족했다.

얼마로 먼 여정이지만 매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을수 있어 감사했다

팀훈련때 부터 팀원들의 건강문제, 가정문제 사별문제
우리팀원들은 지친정도로 힘이들었다

하루한 우리팀은 극복하지 않고 땀과 기도로 평상~~복~~항하여
한명으로 부족함 없이 파송할수 있었라

이른새벽이나 새벽 우리와 사역의 루한스크에 도착하여
피곤한 가운데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루한 우리팀은 하루하루 힘이 솟았다

모양원 어른들은 만나게 해주신 어두웠던 일초들이

우리팀원 모두가 한분씩 손잡고 기도해 드렸더니 표정이
밝아 지고 뽀뽀까지 해주셨다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한걸음 가벼웠다

머리가 사역으로 학교에 들어가 교사들의 예수충격 많은 눈길에로

아랫쪽 하지 않은 율동과 찬양 성찬기르까지 하게 해주고

죽어보인 심방까지 전에서 높은 자리가 있었지만 육신이

외약게 외롭게 사시는 모습 안타깝다 .

예수그리스도를 성령하신 천국은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하며 사역을 잘 마칠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크라이나 선교 강사문

사역기간: 10.1 ~ 10.11

초기 천국 천사

먼저 선교단 우크라이나 선교사역에
3백여이나 사명해 주셔서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나 교회성도들이 늘 믿어 주셨고
다시 만나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주일예배에 어떤 말씀이 선포하시는지 말씀이
구속되었는데 통역도 통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제3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다.

학교사역에 거침없이 찬양과 율동, 영성기도까지
차라지게 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배설이 다리를
소망했습니다. 또.

영국천사역에 한분 한분 손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흘려진 그 뜨거운 눈물과 눈물을 잊을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있던 화려한 직장의 삶이었지만
연락하심으로 외로운 독거노인들과 한가정 한가정 심방할 때마다
찬양드리고 통성기도와 마음을 나누게 해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서시며 가르치신... 모든 사역 순간순간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교회에 90% 이상인 우크라이나에 빛나는 복사방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 주셨사나 목사님을 영혼의 강전함을 위하여
주사하고 성령 중산함으로 우기가 되었던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역내내 성령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1팀

15교구 이영순 권사

벌써 3번째 우크라이나 루안스크로 선교를 갔다. 멀고 긴 여정 비행기에서 내려 멀고도 울퉁불퉁한 거리를 지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역지에 도착하자 반기는 목사님 가족.. 자주 본 것 같은 친숙한 모습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 도착 다음날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예배를 드린 후, 지난 2번째 선교 당시 만났던 어린이 3명이 전도되었고, 1명의 여성은 꾸준히 교회를 나오며 세례를 받은 후 그의 남편까지 전도해 함께 교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야박한 그 땅에 새 생명이 자라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기쁘다.

올해 첫 사역은 학교에서 시작하였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십 명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준비한 여러 물품들을 나누고, 찬양, 율동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함께 게임을 하며 학교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했다. 다음 사역 장소는 양로원으로 찬양과 말씀을 전한 뒤 어르신 한분 한분을 위해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로 전하는 우리의 기도 어떤 어르신은 환한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했고,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난 것이다. 이후 독고노인, 어린이 사역 등을 하고 선교를 마쳤다.

사역을 끝내고 들어오는 길..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주심에 감사함이 넘쳤다.